

불 조 심

이 경 희

〈서울시 서대문구 불광동 345-7〉

‘불조심’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들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우리들의 귀와 입과 머리에 젖어 있는 단어이다.

‘불조심’ 항상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위험한 상태에까지 도달하는 경험이나 직접 불이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극히 드물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저 신문에 난 기사를 읽고 혀를 쭈뼌차며 TV에서 보고 어이없어 하면서도 그런 끔찍한 일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즉 나와는 아주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던 내가 세번씩이나 불 때문에 놀라고 나서는 가슴 두근거리는 병까지 생기게 되었다.

가정부가 없이 직접 모든 살림을 맡아 하기 때문에 불조심을 아주철저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격이 좀 소심한 탓으로 때문이나 마루문 같은 것도 잠가 놓고도 자리에 누웠다가 흑시나 하고 또 일어나 보고 불티가 남은 연탄재에 물을 잔

뜩 뿌려 놓고도 잠간 후에 또 나가 보고 또 나가 보는 나였지만, 그래도 소홀한 데가 있었던지 세번씩이나 불때문에 놀라게 되었다.

한번은 어느 추운 겨울 일요일 아침이었다. 온가족이 전부 청소하고 아침 먹을 준비를 하느라 나는 부엌에다 석유 난로를 켜 놓았다. 부엌에서 식사를 하는데 추울것 같아서 반사경 난로를 미리 피워두고안방 청소를 하고 나서 부엌에 들어와 보니 난로 위에다 아빠가 뽕뽕 얼어 붙은 구두약 통을 올려 놓고 그만 잊고 있었다.

내가 보았을 땐 구두약이 완전히 물이 되어서 죽—넘쳐 흐르면서 거기에 난로의 불길이 붙고 있지않겠는가?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구두약 통을 얼른 집어서 책 던져 버렸다. 순간 부엌 바닥에 구두약이 쏟아지면서 불이 확 불기 시작하였다. 부엌은 재래식을 고쳐서 마루만 놓고 그 위에 비니루를 깔았는데 그 비

니루가 구두약물과 함께 불이 번개처럼 타 들어갔다.

너무 놀라서 “여보! 여보!” 부르면서 우선 석유 곤로 불을 끄는 동안 부엌 바닥의 불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급한김에 현관에 깔아 두었던 새매트를 갖다가 불길을 덮어 버리고 마구 누르고 밟는 사이에 아빠는 방에서 이불을 갖고 나오고 있었다.

은 집안이 소동을 부리고 나서 나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한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구두약이 인화물질 인 줄은 미처 모르고 석유 난로위에 올려 놓은 무식이나 석유난로 부터 끄고 차분히 처리해도 될 것을 서둘러 쏟아 버린 내 경솔함을 반성하면서 좋은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올 겨울에는 석유난로 대신 부엌에다 연탄난로를 하나 놓았다.

밤먹을때 훈훈해서 좋고 더운 물을 부엌에서 쓸 수 있어 좋을 것 같고 또 석유난로 보다 연탄 난로가

은근하여 불에는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설치하였다.

그런데 초겨울 연탄 파동으로 연탄질이 너무 나빠서 꼭 하루 3장을 갈아야만 했다. 그렇게 갈려면 꼭 밤에 자다 일어나서 불을 갈아야했기 때문에 나는 밤 11시쯤만 되면 밀불이 많아도 우선 먼저 갈아놓고 아주 아침까지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불을 갈 때에는 밀불이 너무 좋아서 시뻘겍게 이글이글 타고 있어서 연탄과 연탄이 딱 붙어서 영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밖에서 칼로 갈라서 갈아야 하는 불편을 저녁마다 겪지만 새벽에 자다 일어나기 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렇게 하곤 했다.

그날도 몹시 추운저녁 이었다. 아랫목에 잠깐 누웠다가 으시시한 채로 일어나 불을 갈려고 난로 뚜껑을 열었더니 여전히 이글 거러머 타고 있었다.

으레 저녁마다 하던 버릇대로 쪼개로 접어서 부엌문 밖으로 들고나가 칼로 자를 려고 딱 불은 연탄뚜껑을 한번에 들고 나가는 순간 그 시뻘겍게 타고르던 밀 불이 부엌문 앞에 다 가기도 전에 부엌 바닥에 똑하고 떨어지지 않았는가!

칼로 떨러고 해도 힘든 이 두 연탄이 이렇게 쉽게 똑 떨어지리라는 걸 누가 알았겠는가? 그 순간 연탄이 탁 부서지면서 바닥에 갈아놓은 비니루가 여기 저기서 불이 불기 시작하니 나는 한손엔 연탄 집게에 위에 있던 연탄을 쥐고 있는 터라 나가지도 들어 오지도 못한채 “아빠, 아빠”하고 소리를 지르곤만 있으니 아랫목에 누워서 TV를 보던 아빠는 불이란건 생각도 하지않곤 저 사람이 왜 저리 소리 지르나

하고 나오지도 않고 있었다. 너무 급해서 쥐고 있던 연탄을 다시 난로에 갖다 넣고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을 땐 부엌 바닥에 이미 불이 확 번졌을 때 였다. 그때야 아빠가 허둥지둥 나와 보고 급한 김에 지금까지 연탄 난로위에서 시글 시글 끓고 있던 한 솥의 물을 확보 있었는데 물이 많고 너무 당황해서 물을 부으면서 아빠가 미끄러져 넘어졌으니 순간 뜨거운 물이 발등에 쏟아지면서 “아이 뜨거워”하는데 금방, 아빠가 어떻게 되는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미끄러져 넘어진 아빠의 잔등을 잡아 당기면서 사람살리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지만 워낙 추운때라 집집이 문을 굳게 닫고있어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한통의 뜨거운 물이 부엌 바닥에 쏟아지면서 타고있던 불과 합쳐져서 김과 연기가 삼시간에 온 집안으로 퍼져 전등을 켜는때도 하도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 아빠는 전등을 켜지 않은 줄 알고 불쭉 키라고 아우성치는 암흑의 세계가 되었으며 비니루가 타는 독 가스 때문에 그 쪽으로 접근할 수도 없었다. 불길은 잡힌 것 같아서 마루문 방문을 다 열어 놓고 아빠를 밖으로 모시고 나왔을 땐 자고 있던 세 아이가 부들 부들 떨면서 서 있지 않았는가! 얼마나 놀랐고 어이없는 일인지 형용할 수조차 없었다.

재래식 부엌을 개량한 것이라 부엌 천장엔 다락울 그대로 두어서 나무로 되어 있으며 그 다락안엔 배가 십여년을 물한방울 헛되어 쓰지 않고 차곡 차곡 모은 온 재산이 들어 있었다.

불이 꺼지고 가스와 김이 빠지는 데도 1시간이나 걸리는 것 같았다.

부엌 바닥에 퍼 부은 물을 걸레로 짜내면서 보니 썩크대까지 닳았다. 아주 순간적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타다니! 또 이 정도의 비니루가 타는데 숨쉴수 없을 정도의 독가스가 그토록 많이 나왔단 말인가 온 집안이 비니루 탄 냄새로 가득해서 아뢰들은 기침하느라 야단이 고 물바다가 된 부엌은 어수선하기만 했다. 너무나 놀라서 팔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떨리기만 했다. TV에서나, 신문에서나 읽던 불이 우리집에서도 일어날 뻔했다니,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 그토록 무서웠으니 정말 불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암흑, 그 가스, 그 열기속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을 생각하니, 고마움이 절로 솟았다.

부엌마루가 밤이 시려서 갈아놓은 비닐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다니 당장 걸어 치워야지 하면서 그 겨울을 지냈다.

그 후론 더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불조심을 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물론 아무리 딱 불은 연탄이라도 그 밑에 꼭 그릇을 한 손으로 받쳐 들고 다니고 작은 불씨라도 떨어지지 않았나 확인하고서도 연탄을 갈고난 후 약 30분후에 다시 부엌에 나와서 혹시 떠러진 불씨로 타고있는 곳이 없는가를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불이 되어서 연탄난로를 때었으니 부엌에는 취사용으로 쓰는 석유곤로 하나 밖에 없었다.

그 석유곤로야 내가 켰다 꺾다하며 자리가 고정되었으니 별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사용하던중 하루는 아이들과 봄놀이를 나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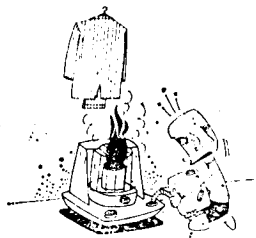
저녁때야 집에 돌아와서 부엌에 들어오니 부엌이 후끈 후끈하고 석유 냄새가 나고 있었다. 곤로를 들여다 보니 언제부터 켜져있었는지 불이 붙어있었다. 곤로의 소화장치로는 분명히 끈 상태인데 불은 타고 있으니 이게 웬말인가. 곤로통을 들고 입으로 불어도 꺼지지 않는다. 아직 이렇게 꺼지지 않을때가 없었는데 무슨 조화일까, 아무리 입으로 불어도 꺼지지 않기에 정신없이 곤로의 이것 저것을 만져 보니 석유 넣는 곳의 뚜껑이 열려 있었다. 낮에 석유를 넣고 잠박 잊고 그곳의 뚜껑을 닫지 않았었다. 석유 넣는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심지가 계속타는 것인가 보다.

석유곤로를 10여년을 사용했어도 처음 당하는 일이다. 얼른 구멍을 닫고 입으로 불었더니 싹 꺼진다. 이마엔 구슬땀이 솟았고 현기증이

난다. 점심식사때 시어머님께서 키셨다가 끄셨다는 곤로가 아무도 없는 빈 부엌에서 계속타고 있었으니 그 석유곤로 위에 아무것도 없기가 천만 다행이지 주전자라도 있었으면 물이 다 줄고 까맣게 타서 손잡이 까지 타 들어가서 다른데로 인화되었으면 천장이라고 낮은 다락, 밀바닥은 아직도 견어 치우지 않은 비닐들이 주인없는 집에서 얼마나 잘 닳았는가? 곤로위에 아무 것도 없었지만 만일 그 위로 찬장이나 다른 높은 곳에서 종이라도 한장 떨어져서 불이 붙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나 놀랄일이었다. 위에서 일어난 두가지 사건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당황은 되었지만 침이 텅빈 상태로 끈 줄알았던 석유곤로가 꺼지지 않아서 불이 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다.

10여년을 악착같이 모은 내 온갖 알뜰한 재산이 나 없는 사이에 뽕뽕 재로 변하게 될 뻔했으니 그 다음 일은 생자조차 할 수 없다. 그토록 불조심을 하느라고 했는데도 무식과 당황이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석유 곤로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심지의 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큰 잘못이고 또 석유를 넣고 꼭 잠가 두어야 할 뚜껑을 닫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으면 실사 그했다손치더라도 석유곤로의 소화기만을 돌려 놓았다고 불이 꺼진것도 확인하기 전에 자리를 뜨는 것은 불에 대한 조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를 반성하며 앞으로의 우리 집 불조심에 만전을 기하여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부인 나부터 주의에 주의를 다하고 또 다할 것을 결심하였다.



우 리 는 保 險 家 族

高 秉 璇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성동 318〉

저는 별로 글도 쓸줄 모르는 금년 42세의 서민 가정 주부입니다. 그러나 이 수기만은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꼭 잘 써보고 싶은 의욕이 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므로 말미암아 재난을 보상받게된 수기를 공모한다는 것은 마치 저의 응모를 위한 것 같은 반가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신이 바로 우연한 기회에 화재보험에 가입했던 일로 인해서 큰 재난의 불행을 몇 배나 보상 받았던 일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비로소 깨달은 보험에 대한 고마움과 필요성을 뒤늦게나마 자각하여 이제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적인 생활상식이나 경제상식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어둔한 여자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이날 여태까지 바깥출입도 별로 못해보고 살아온 처지였으니까요. 예로부터 여자는 대문밖을 모르고 살수 있어야 행복한 것이라는 속담도 있거니와 저의 천성이 본래가 외부의 사회생활에는 관심조차 가질 줄 모르고 살아온 처지였읍니다.

그러기에 사실 보험이란 것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주변없거니와 가난하게 사는 저희집 남편 역시도 그렇습니다.

칠십고령의 시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사남매의 아이들까지 도합 일곱식구가 남편의 근로수당월급 4만 여원 정도를 가지고 생활을 하자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라곤 오직 방두칸짜리 기와집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삶을 위해 발버둥 치는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때로는 복받쳐 오르는 시름과 괴로움을 억제하기에 마음을 굳게굳게 가다듬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큰 노력입니다. 사람이 목숨만 붙어있으면 될하는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명제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무슨 사는 가치가 있단 말인가? 인간의 삶에는그래도 어느 정도 행복의 선이 있어서 그 기준선은 넘어서 살아야 할게 아닌가?

우리마을에는 모두가 가난한 노무자들만 모여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답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10년, 20년 일만 해 오지만 아무 희망이 없으니 남아 있는 허송세월이라고 한탄들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사는 걱정 얘기가 아니면 품값 인상추진 방안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품값인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몇푼 오른다해도 그것으로 생활의 해결이 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생활방도를 취해보려고 애쓰지만 땅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노무자 부인들끼리 짜낸 궁리는 기왕 쪼들리기는 마찬가지이니 월급때 몇푼씩 떼어 모아 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정씩 목돈을 놔서 무슨 부업이라도 모두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래서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몇달 계속되는 동안 사람개개인의 사정이란 항상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나게 마련이므로 뜻대로 안되어서 그만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목적했던 계획이 깨지고 켓돈만 빼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후 이왕이면 안전한 은행에 적금을 해 보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저축을 해서라도 목돈을 만들어서 무슨 생활 대책을 마련 해야지 이때로 변화없는 생활만을 어리석게 계속하다가가는 맥이 빠져 쓰러질 것만 같아서 입니다. 그래서 어느날 남편에게도 저축에

관한 의논을 했더니 그이는 도리질을 하는 것입니다.

저축이란 것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운 처지에 저축이 다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은 어둡한 여자인 제 소견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꼼꼼히 생각해 볼 때 저축은 없는 사람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너털한 사람이야 구태여 저축할 필요가 뭐있겠습니까? 어쨌던 저는 이래로 변화없는 가난한 생활만을 계속하기 보다는 저혼자만의 의견대로나마 변화있는 생활 즉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해서 실천해 봐야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 잘 살 수 있는 방안이란 저축을 통해서 이룩해 보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 같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내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 더러 은행에 들러서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라고 했더니 어느날 조그만 예금안내 책자를 농협에서 얻어다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니 자기형편에 맞는 저축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예금제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적립식 정기예금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일년간 수회 불입한 다음 2년간 예치해 두었다가 찾으면 원금의 98%의 이자가 붙는 아주 이득한 예금으로 우리 형편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입니다. 이래서 시내에 나갈 여유가 있는날을 기다릴 즈음 저희 집에는 고려화재해상보험 음성출장소에서 나왔다는 직원 한사람이 찾아와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

지만 해도 보험이 어떤 것인지조차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의 어둡한 의견을 들은 보험회사직원은 보험도 역시 저축이며 단순한 저축외에 재난을 보상해 주기도 하며 보험금 지불방법도 일일이 은행에 가서 낼것없이 다달이 수금원이 와서 받아가므로 편리한 잇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화재를 당했을 경우 불입한 금액보다 몇십배,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배의 재난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얘기에 저는 구미가 당겼습니다.

보험이란 말하자면 우리 온 국민의 상부상조하는 즉 전체는 한사람을 위해, 또 한사람은 전체를 위해, 그리고 국민은 나라를 위해, 나라는 국민을 위해, 재난을 상호 보상해주는 제도라는 것인데 이것을 모두 활용하여 재난을 보상받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키 위한 보험 저축을 하면 얼마나 좋으냐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저축보다도 여러가지 다양한 잇점이 있어서 저는 은행에 저축하려던 생각을 바꾸어 보험에 가입키로 했습니다.

우리의 국민한 생활형편을 들은 직원은 한달에 4,120원씩 불입하는 5년만기 장기화재 보험을 가입하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기일에 가서 불입한 전액과 이자를 가산해서 목돈을 찾게되는 것이며 만약 보험계약을 한날로부터 만기일 이내에 화재나 재난을 당할 경우 2백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왕이면 4백만원짜리를 가입키로 했습니다. 기왕에신경쓰이는 일은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좀 무리하지만 큰 액수를 가입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눈뚱감고 계

약을 했습니다. 한달에 8,240원씩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노무자 월급 겨우 4만원으로 일곱 식구가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중에 8,240원을 빼면다면 생활에 큰 위협이되지만 이래저래 고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니 죽기아니면 살기라고 독한 맘을 먹고 그렇게 가입한 것입니다. 이날이 76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돌아간 후 보험통장을 손에든 저는 이상하리만큼 흥분하고 흥겨우며 희망에 부풀어 울랐습니다. 남이볼까 사망을살피며 몰래 어린애처럼 몇번이나 통장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저축성 보험을 시작해보는 때문인가 봅니다.

제이름「고병선」이란 세글자가 또렷이 살아서 신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큰 재산이나 마련한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어서 다음달에도 보험통장의 다음 칸을 메을 때가 왔으면 하고 기다려 집니다.

저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가족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이가 알면 또 부질없는 짓을했다고 나무랄까봐서 저 혼자서만 끝까지 보험금을 넣어서 이 다음에 목돈을 타서 그이 앞에 척 내놓으면 설마 그때야 자기도 새로운 자각을 할 수 있는 제기가 되며 또한 내게도 새로운 인식으로 대견스러운 정을 줄수 있는 제기가 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목돈으로 무슨 부업이라도 할수있는 밑천이 되겠지 하고 생각하니 미리부터 기쁨과 희망의 기매가 크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대신 저는 갖은 세심한 지혜와 노력으로 절약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만여원으로 생활하던 것을 8천여원을 빼내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자니 자연 절약생활의 지혜와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선 식생활부터 절약 개선을 단행했습니다. 아침은 혼식밥이고 점심은 우거지국에 찬밥이나 국수이고 저녁은 언제나 죽이 아니면 수제비국으로 식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루음식만 날마다 먹게되니 싫증도 나지만 그러나 한가지 음식만 해먹는게 아니라 같은 가루를 가지고도 하루는 국수 하루는 수제비 하루는 빵등등..... 이렇게 번갈아 다른 음식으로 맛을 달리해 먹으니 견딜 수 있었고 즐겨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식비가 훨씬 적게 들어서 보험금을 장만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보험금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모든면으로 절약습성을 키르다보니 가정에서는 전보다 더그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집안을 다스리게 되고 정이 골고루 미치게되어 가족들 사이에도 화목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험금 마련을 위한 절약생활은 정말 안정생활의 기초이며 더의 근원인가 봅니다.

보험금을 위한 절약생활이란 단순히 목돈을 만들기 위한 것.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인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미처 생각 못했던 갖가지 유익한 생활관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에 항상 생기가 없이 맥풀린 사람처럼 지내며 생활에 불안함을 느끼고 걱정했던 것도 실상은 믿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음을 자각했습니다.

그 믿음은 곧 보험인 것입니다.

보험금을 만들기 위한 절약저축은 곧 행복한 생활자체이며 사랑과 행복과 즐거운 마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촉진제이며 불안하고 근심걱정을 없애주는 약과 같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모든사람들이 이런 것을 아직 모르는 것인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재난을 보상받고 자립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보험이란 제도가 아직도 일반대중 속에 모두 인식이 안되었으니 어찌 안타깝지가 않은 일인가!

푸른안경을 쓰고 사방을 바라보면 그 전체가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보험저축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보니 매일매일 무슨 일든지 매사에 즐겁고 일손에 힘이 나며 근심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보험저축 생활은 또한 우리에게 합리적인 생활방법을 깨달아서 실천하게 하고 옹기 절약하는 생활방도를 자각하게 해주며 화목하게 살수있는 마음을 얻게하고 돈을 옹기 쓰는 습관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험은 저의 생활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 보험이란 신앙생활 때문에 무슨일이고 할수있는 참을성과 새힘이 솟아나고 또 작은것도 고맙게 여기는 마음도 은연중 깨달아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뿐인가요? 슬픔과 서러움을 가슴에 품고도 지국이 견디는 용기와 이웃에게 까지 우정이 두텁게 되고 우리보다 곤란한 사람은 도와줄 줄도 아는 상냥한 마음씨도 배운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결국 보험저축 생활에서 얻은 저의 재산이 아니고

뒤졌습니까? 그리고 보니 생활과 보험의 관계는 마치 음악과 악기와 의 관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에 미치는 보험의 영향은 음악에 미치는 악기의 영향과도 같은 것이어서 악기의 반주없는 음악이 싱겁듯이 보험없는 생활이란 무의미 하며 안정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사회 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처럼 상부상조 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활용 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비문화적 생활이요, 부끄러운 생활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란 마치 우리네 주택의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것으로 담이 있음으로써 도둑을 예방하고 또 허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험 가입 생활을 하므로서 재난을 예방하고 마음에 안정과 자유로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울타리나 담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산다면 남보기에 부끄러운 생활이 아닐수 없는 것과 같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어찌 비문화적 생활이 아니며 부끄러운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생활 주관으로 꾸준히 절약저축을 하고보니 다달이 보험금을 무난히 낼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지 9개월째 되는 76년 11월 21일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우리집에는 그만 화재가 난 것입니다.

저는 이날 김장을 버무려 담갔기 때문에 피곤해서 초저녁부터 쓰러져 누웠고 그이는 마실을 가지고 아이들만 공부를 하다가 쓰러져 잤는

데 제일 막내인 다섯살배기 인숙이가 고만 잠결에 방안에 있던 석유콘로를 발길로 차는 바람에 엎어져서 불이 나고 만 것입니다.

석유가 방안에 었질러져서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제가 피곤한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불이 벌써 지붕에까지 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행히 밖으로 무사히 대피하고 막내인 인숙이도 큰 아이가 재빨리 안고 밖으로 나와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웃사람들이 물러들었지만 속수무책인채 안타까운 아우성 뿐이었고 뒤이어 소방차가 달려왔으나 이미 집이 모두 타고난 뒤였습니다. 나무기둥에다 석가래로 지은 구식집이어서 순식간에 집과 방안의 가산들을 홀랑 태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족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은 극도의 비관적인 절규를 하며 자기의 복없는 운명을 저주하면서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이는 모든 삶의 용기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 난 것입니다.

재산을 잃은 것이야 다시 벌어서 찾으면 된다지만 용기를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생을 비관하고 삶을 포기한다면서 까지 절규하는 남편 앞에 저는 상냥한 웃음으로 위로하며 화재보험통장을 내밀며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눈 알을 계란만큼이나 크게 뜨고 입을 벌리면서 한동안 말을 못하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보험금 4백만원을 타게 되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지 아

홉달만에 보험금 74,160원을 내고 4백만원을 탄 것이니 그야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전에 방 두칸짜리기와집을 화재로 잃었으나 그 대신 보상금을 타서는 60평대지에 건평 21명으로 방 4칸짜리 양옥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도 50만원 가량이 남아서 부업자금도 마련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제 충분한 행복과 희망을 얻게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제야 어떠한 재난을 당한대도 이를 예방하고 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할 의무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보험저축 생활을 해나가므로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재난을 당할 경우는 보상까지 받게되는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안정된 경제적 자립과 자유와 행복을 얻게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은 국가와 사회를 키워나가는 애국도 될 뿐아니라 우리의 세대는 물론 후대자손들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믿어온 지혜로운 생활방법임을 재삼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진작 보험을 모르고 지냈던가! 하고 어둡했던 우리 자신들을 한탄했으며 좀더 일찍 가입하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되었습니다. 실사 화재를 당하지 않는다 해도 보험을 가입하므로서 저축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생활의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보험저축을 하므로서 알뜰한 생활방법을 배워 가정을 향상시켜 나갔을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모르고 전에는 그저 단순히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가난만을 원망하고 복없는 팔자타령의 벗

두리만 했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어리석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생각하니 전에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의 이기적인 병이었으며 그때는 결국 행복을 소비할 것만 생각하고 생산할 것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활의 안정과 희망과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눈먼장님이 아니고 누구나 스스로 재난을 막을 줄 알고 자립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스스로의 체험으로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힘이 솟았습니다. 보험은 이제 우리 가정의 자랑이요 의무라고 생각하며 영원히 생활화할 것을 한마음 한 뜻으로 다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에 대한 고마움과 필요성에서 우리는 우리 가족이 즐겨 부를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는 보험가족」이라는 노래까지 작사 작곡하여 부르고 있는데 그 가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험가족」

- (1) 우리는 보험가족 희망의가족
오늘은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다달이 보험저축 늘어갈때에
이다음 복된행복 찾아온대요
후렴 { 라라라 라라라라 보험의기쁨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 (2) 우리는 보험가족 행복한가족
아무리 고단하고 피로한몸도
보험이 약속해준 희망을알고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 (3) 우리는 보험가족 꿈있는가족

살림은 가난하게 차렸지만은
나날이 늘어가는 보험저축에
희망은 너무커서 말을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재난을 보상 받고
또 생활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결
코 보험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보험을 중단한다면 믿고 살던
남편을 잃은 아내의 처지와 같은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재의 재난을 보
상받을 것을 기화로 해서 비단 화
재보험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교
육보험 그리고 생명보험등도 가입
했습니다. 기왕이면 안전하게 잘살
수 있는 사회제도를 한껏 활용해야
겠다는 지혜를 이제야 체험으로 배
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 누구나가 이렇
게 안전하게 재난을 보상받고 자립

의 기를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마
련된 가장 합리적인 저축방법인 보
험에 모두가 가입한다면 어느 한가
정도 슬픈 재난을 당하는 일이 없
을 것이며 또한 사회와 나라가 부
강해 질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안
타깝게 생각하며 이 수기를 통해 외
치면서 보험가족이 되기를 권고하
는 바입니다.

〈끝〉

해외토픽

◎ 신형特殊鎮火劑

불이 일어났을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소방법이 프랑스와 유진 쿨만(Ugine, Kuhlmann)사의 석유화학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의 원리는 불이 나면 즉각 그 장소의 공기중 산소함유량을 1%로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것인데 이 정도의 산소량은 고도 500m에서 호흡하는 것에 해당한다.

공기중에 분출되면 수분내에 불길을 꺼뜨리는 작용을 하는 이 새로운 진화제는 피로포테인 1301 이라고 명명되었는데 불길과 떨어진 거리에서도 소화가 가능하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보호해야 할 장소의 면적을 고려해서 진화제의 농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진화제는 불길에 직접 닿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방법이 간편하며 또 건물의 어느 부분에라도 설치가 가능하다. 진화제 분출에 따른 위험이 없으므로 취급자로서도 안전하며 보존하기에도 문제가 없다.

피로포테인 1301은 이 밖에도 정유공장의 관제실, 석유화학 기구, 컴퓨터실, 문서보관실, 전류가 흐르는 곳 등에서 안전작업을 위해 다각도로 이용될 수 있다.

이 물질은 액체형태로 저장되는 3중형광브로모메탄(Trifluoro bromomethane)으로서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특히 드라이아이스를 설치하는 경우보다 5배 좁은 장소에서 저장 가능하다.

문의처 : 駐韓프랑스大使館

◎ 火災 탐 지 기

영국에서 제작되는 최신화재탐지기는 병원, 학교 및 공장 등 건물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된다.

時分割多重式을 이용하는 이 시스템은 단순한 사고감시 대신에 규칙적으로 대신호를 심문한다.

유지가 용이하고 반숙련자도 운용할 수 있다.

TDM은 이 시스템의 매 신호가 각 1msec지속하는 128시분절로 분할되어 있음을 말한다.

시험 및 설치소요시간이 상당히 줄어졌다.

이 최신식 탐지시스템은 건물내 보호구역의 계속 감시뿐만 아니라 경보를 울리고 소방대기소에 자동적으로 접속되며 방화문을 작동시키는 설제와 기타 필요한 장치도 되어있다.

복잡한 전체 건물이 여러개의 境界구역으로 구분되어 각 구분에 연기, 열탐지기, 경보벨과 사이렌장치, 살수시스템 및 자동방화문같은 보통화재탐지장치가 설치된다.

이것이 화재탐지회로 상태를 감시하는 부문통제장치에 보통배선으로 연결된다.

각 부문통제장치는 전파를 접수하여 개별적으로 인지하는 主통고자에 연결되어 연속적인 펄스의 흐름에 따라 각종 기구와 장치가 작용하게시리 되어있다.

정전사고시를 고려하여 전원용으로 24V 쌍 12/24V보조용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제작회사 : Static Systeme Group Heath Mill Road Wombourne, Wolverhampton West Midlands
WV5 8AN England